

한민족, 한국인은 두 갈래(?)

글 | 이종호 _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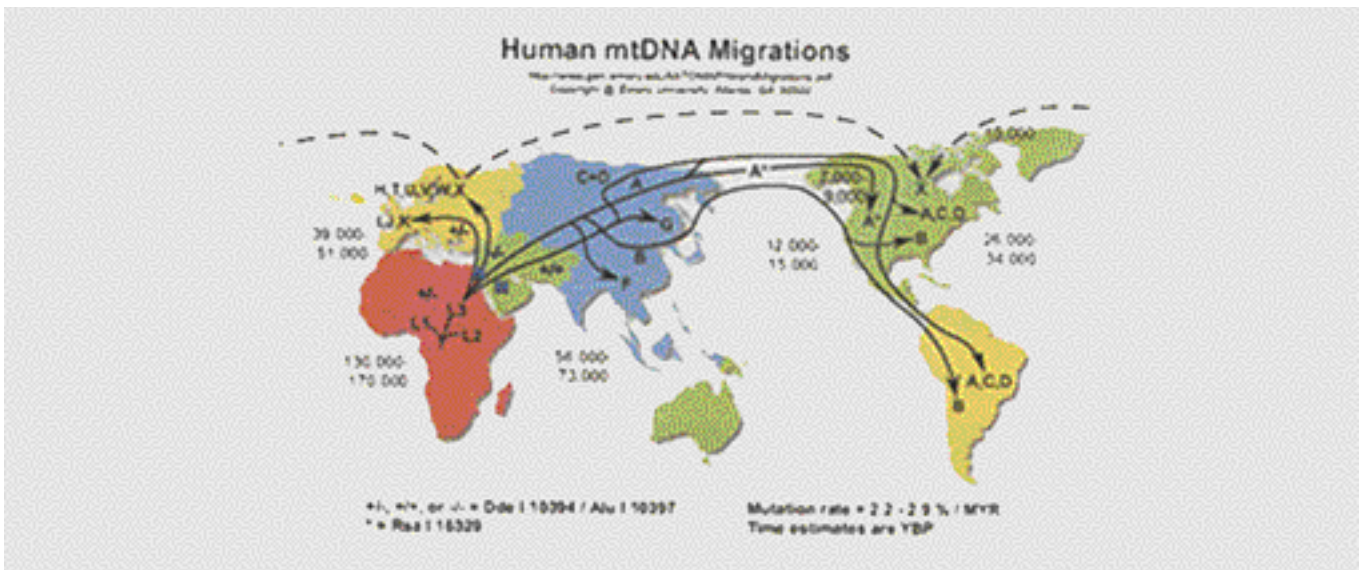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수한 한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단일민족국가로서...’와 같은 글을 배운다. 북한도 역시 ‘한민족은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 땅에서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라며 한민족은 단일민족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단국대학교의 김 옥 교수는 Y염색체를 이용한 연구결과 한민족의 뿌리는 크게 두 갈래로 70~80%는 북방계, 20~30%는 남방계이며, 기타 일부 유럽인과 다른 그룹이 섞여 있다고 발표하여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다.

유전적으로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주장 제기

한민족은 인구 숫자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방 아시아인이 주류이지만 남방계도 상당수로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고고학적 연구나 문화인류학적 연구 결과와도 합치한다는 지적이다. 김 옥 교수가 발표한 한민족의 원류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동아시아인 집단 형성에 관한 과거 인류의 집단팽창 과정과 이동경로, 그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인류유전학자들이 지지하는 아프리카 기원설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갈라져 나온 인류가 중동을 경유해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에



미토콘드리아 DNA분석에 따른 이동로



탁록전투, 치우천황은 기원전 2700년경 중국의 황제(黃帝)와 중원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탁록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중국 한족이 이민족과 벌인 최초의 전투로 추정한다(김산호 그림).

정착한 경우와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를 경유한 집단이 동남아시아 또는 한반도와 일본에 정착했을 경우 두 방향으로 추정하지만 어느 곳에 먼저 정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 휴스턴대의 리 교수 등은 Y염색체 DNA 분석을 통해 약 6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먼저 정착한 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무렵 동북아시아 및 시베리아로 이주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쿤밍대의 야오 교수도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해머 교수 등은 동아시아인의 집단형성은 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했다. 그는 Y염색체 DNA 분석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유전자 풀이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집단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Y염색체 DNA의 등장은 과거 인류의 진화과정과 이주경로, 부계혈족확인, 유전자감식 등에 획기적인 성과를 안겨주고 있다. Y염색체는 남자에만 존재하며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 아들에게만 물려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Y염색체는 일부 말단부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NRPY)이 X염색체와 교차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돌연변이의 정보가 연관 상태를 유지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여하튼 우리 나라 집단은 동아시아인 집단 가운데서도 중국인의 만주족과 가장 가까운 유전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 남부인(예 : 묘족)과 베트남인 등과도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묘족이 한국인과 유사하다는 것은 동이족의 선조로 여기는 치우 천황과 중국인의 선조로 여기는 현원(황제)이 탁록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 치우 천황이 패배하자 동이족의 한 부류가 중국 남부로

내려가 묘족이 되었다는 설명도 있다.

또한 일본인 집단은 동아시아내에서 한국인 및 만주족과 가장 가까운 유전적 유사성을 보였는데, 이는 약 2천300년 전 농경문화와 일본 언어를 전달한 야요이족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 본토로 이주했다는 유전학적인 증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여하튼 한국인 집단은 적어도 두 가지 경로 이상의 다양한 민족 집단이 혼합과정을 겪으면서 형성되었으며, 유전적으로 하나의 민족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동아시아 남방과 북방의 유전적 특성 모두 지녀

민족은 어느 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무수한 시간적,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유전적 동질성과 동일한 언어,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변한다. 지금까지 미토콘드리아 DNA의 분석결과로 볼 때, 한국인 집단에서는 동북아시아인 집단과 시베리아 집단에서 주로 관찰되는 하플로그룹(같은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 A, B, D, G, Y, Z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인 집단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하플로그룹 B, F가 모두 나타난다.

또한 Y하플로그룹의 빈도분포를 보면 한국인 집단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 집단 중에서도 중국의 만주족과 가장 가까운 유전적 유사성을 보이며 중국의 묘족 등과 베트남인 등과도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고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집단이 동아시아의 남방과 북방의 유전적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교대의 조용진 교수도 한국인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타원형으로 길고 정수리가 돌출한 북방형과 얼굴이 모난 남방형으로

구분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북방형은 가급적 표면적이 작은 납작한 얼굴에 흐린 눈썹, 쌍꺼풀이 없는 가늘고 작은 눈, 낮고 작은 코, 얇은 입술을 가졌는데 현대 한국인의 78%가 쌍꺼풀이 없는 눈인 것은 북방계형의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얼굴형의 전국적 분포를 보면 남쪽·해안가이나 강가의 주민 중에는 남방계형의 얼굴이 많고, 내륙 지방에는 북방계의 출현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하여 한국인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을 증빙했다. 한민족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사실은 단일민족이란 말에 어폐가 있음을 뜻한다. 더구나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



2005년 7월 14일 파리 개선문 앞에서 열린 프랑스 혁명 기념 퍼레이드, 프랑스인들이 비교적 순수 프랑스를 외치고 있음에도 실제로 순수혈통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아님에도 다른 민족에 대해 대단히 배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 단일민족이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민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단일민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세계 문명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오지에서 지금까지도 원시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이 아닌 한 역사의 여명기에 살았던 민족들이 서로 혼합되고 동화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프랑스에서 1980년대초에 누가 진짜 프랑스인인가를 호구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정통 프랑스인은 적어도 부모와 조부모 모두, 즉 3대가 프랑스인인 경우를 의미했다. 그런데 호구 조사는 전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다. 프랑스 정부가 호구 조사를 통해 프랑스인을 가린 결과 이 기준에 맞는 프랑스인들은 겨우 2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출생지주의(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획득)'를 채택하여 부모가 외국 국적일지라도 프랑스 국토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인이라고 볼 수 없는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인이라고 콧대를 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구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선 현대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억지만은 아니다. 미국이 합중국이라 부르면서 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많은 국가가 어느 민족의 나라라고 굳이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역으로 한민족의 구성원이 겨우 두 갈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보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수많은 종족으로 나뉘어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하루가 달리 변하는 지구에서 지구적인 차원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들 머리 아프게 만드는 한민족 원류

지금까지의 설명은 한민족의 경우 '다지역기원설', '자생기원설'로만 풀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과학과 기술』, 2005년 10~11월호 참조). 북한의 주장처럼 원인·고인·신인의 화석이 한반도에서 체계적으로 발견되었다더라도 70만~100만 년



오성 이항복(남방계)과 실학자 서유구(북방계) 얼굴, 한국인은 크게 남방계와 북방계형으로 나뉘는데 산업화된 지금도 한국의 강가나 바닷가 출신 중에는 남방계형의 출현 빈도가 높고, 내륙 지방에는 북방계형이 많다(사진 조용진).

이라는 장구한 기간에 한반도에서 인류 이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한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과도 다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어떠한 경로로든 새로운 유민이 한반도에 정착하였더라도 선사민과 유이민간에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융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모순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류사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문화가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설명되는데 근래에는 이것 역시 지극히 일방적인 견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의 내용이 유목생산문화냐 농경생산문화냐를 구별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목문화의 군사-안보적 문화요소가 농경지대로 흘러들어간 사례는 무수히 있다. 주채혁 박사는 농경문화가 유목문화권에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오해는 역사가들이 주로 농경문화

권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도 문화의 전파에 대해 과거에는 한국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윤대현 박사는 적었다. 중국에서 고고학이 도입된 1920년대에는 중국의 선사문화가 외부에서 전래된 것으로 인식했으나 그 후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러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의고(疑古)학과와 신고(信古) 학파 사이의 논쟁으로 결국 신고학파가 승리했다. 중국의 선사문화는 중국내에서 기원하였으며, 그것이 고대문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결론으로 각 선사문화도 종래에 인식됐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하튼 학자들은 한민족의 기원 즉 한민족의 뿌리 찾기처럼 골머리 아픈 일은 없다고 말한다. 한민족의 경우 북방기원설, 남북혼합설, 본토기원설 등이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반기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앞으로 학자들이 도전할 분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